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2011. 6. 27 제92호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 III.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 IV. 시사점 및 정책제안
- 부록: 2011년 2/4분기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하반기 경기 서서히 회복될 전망

2011년 1/4분기 전국의 경제성장률(실질국내총생산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2% 성장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계되었다. 하반기 전국 경제는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대지진 여파에 따른 중간재 수급 불안정 등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경제는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산업생산지수가 2011년 4월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하는 등 성장탄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8% 증가로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자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여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는 다소 주춤한 반면 기업 체감경기는 점진적 회복세

서울시민들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2/4분기에 기준치(100) 이하인 91.3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생활형편전망, 고용전망, 소비지출전망 지수 역시 하락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 기업의 체감경기는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등이 2분기 연속 소폭 상승하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기업의 경우 하반기에 매출, 내수, 설비가동률 등에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은 악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성장력 제고를 위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 필요

2011년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3.2%로 상반기 2.7%보다 증가할 전망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8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하여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경기회복 기조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 계층별로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밖에 하반기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의 소비자의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인상시기, 인상폭 등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 시민의 가계부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프트 등 임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제도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I. 대내외 여건변화 및 서울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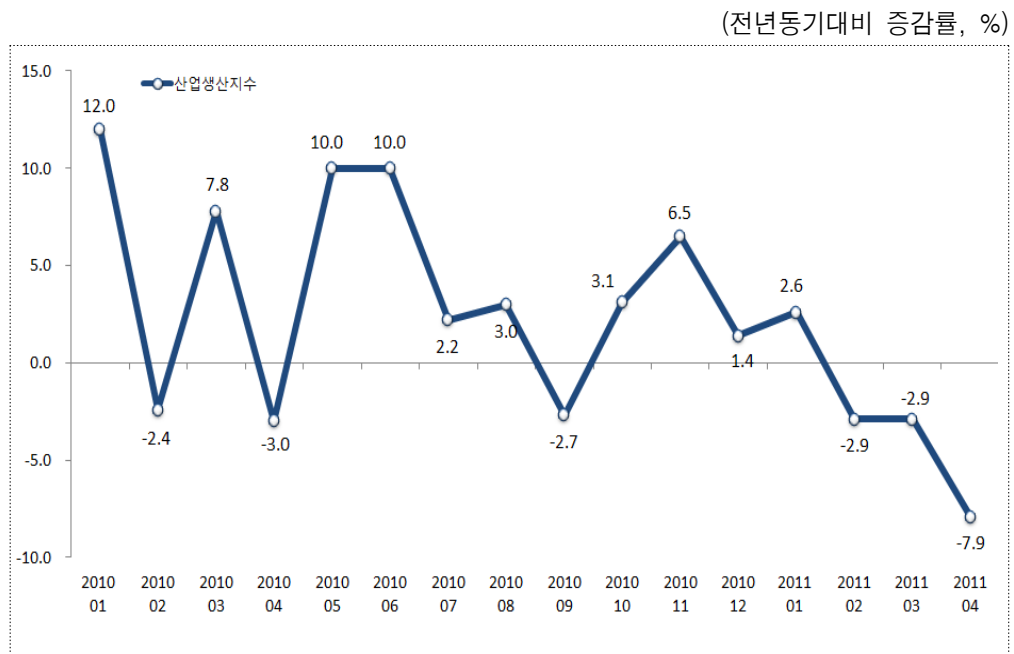
유럽의 금융불안 등 리스크가 상존하나 세계경제는 회복세 유지

- 2011년도 상반기 세계 및 국내경제는 모두 경기회복세를 시현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 미국의 회복기조가 지속되어 세계경제는 연간 3.3%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세계은행 6월 12일 전망치)
 - 2011년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2010년보다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011년 1/4분기 국내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2%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
- 그러나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중간재 수급 불안정 등 불안요인 상존으로 상반기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
 - 2011년 상반기 재정문제가 대두된 그리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국가의 재정긴축 발표
 -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중간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산업생산 불확실성 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금융시장은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중심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경기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 중 서울의 생산은 둔화, 소비 및 고용은 회복세 유지

□ 2011년 1/4분기 서울의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

- 서울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는 2011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2%로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인은 중간재 생산이 11.0%로 큰 폭 하락한 것에 기인
 - 반면, 4월 중 자본재 생산은 2010년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여 상승세 유지
- 2011년 1/4분기 전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6%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서울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되어 성장탄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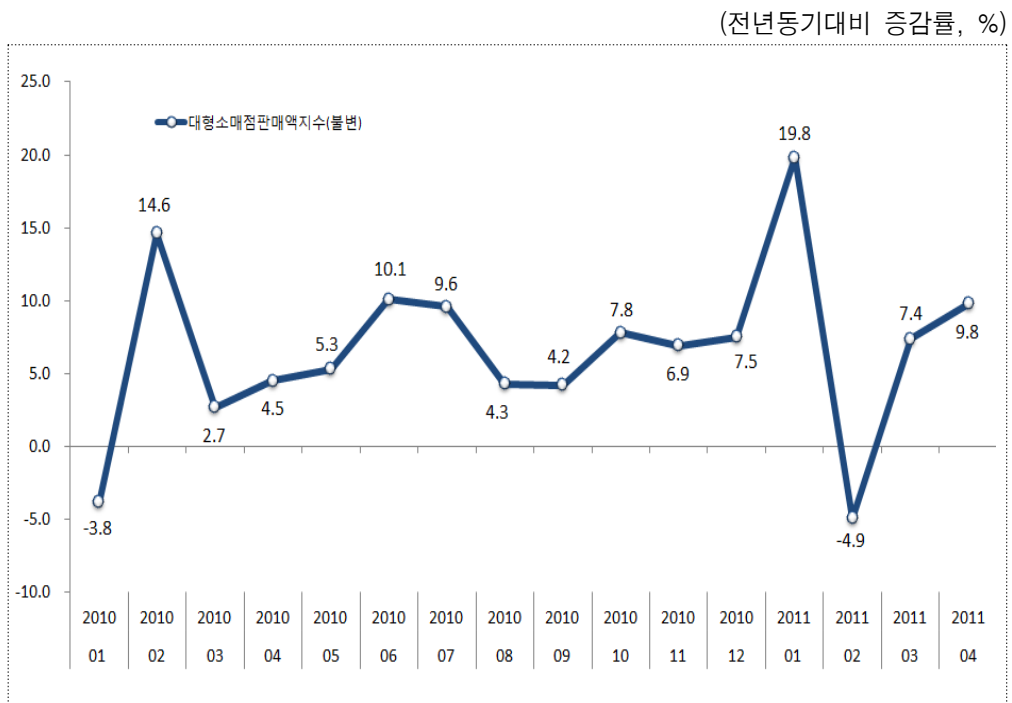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 2011년 1/4분기 서울의 소비는 7.43% 성장세 유지

- 2011년 4월 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9.8%로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성장폭 확대
 - 2011년 2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하였으나 이는 신년연휴(설날연휴) 등의 계절효과에 따른 것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1년 1/4분기 중 백화점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3%,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4%로 전분기대비 각각 0.3%p, 0.6%p 증가
-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2011년 2월 (-4.9%)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내수 회복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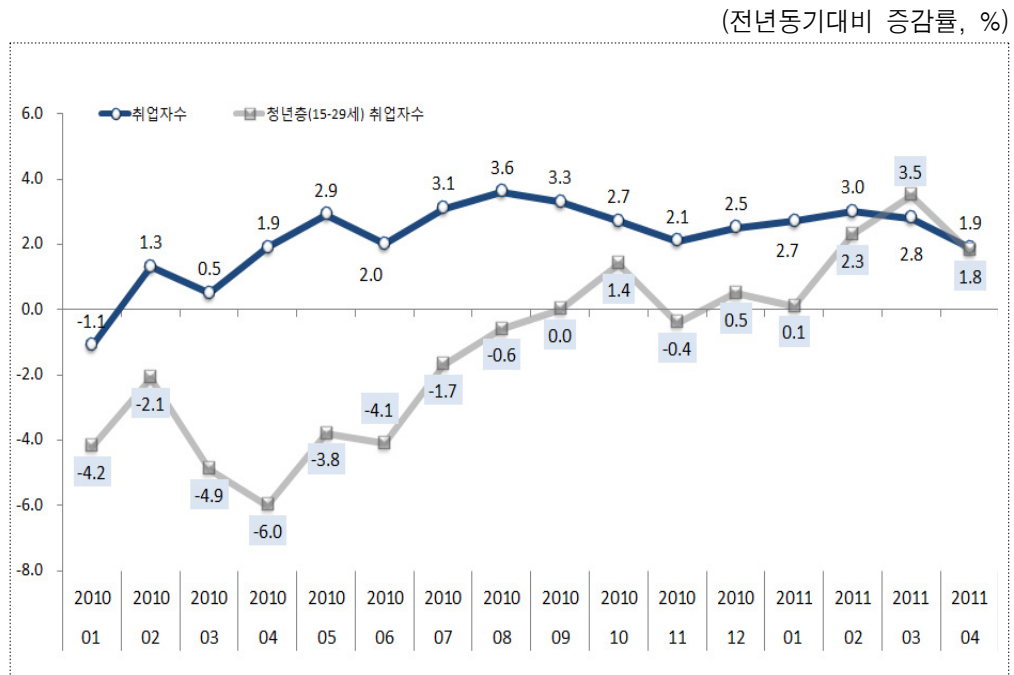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 2011년 1/4분기 서울의 고용은 완만한 회복세 유지

- 서울의 취업자수는 2011년 2월 이후 회복세를 보여 4월 중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2011년 1/4분기 중 서울의 취업자수도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는 등 2010년 1/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
-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 역시 2010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4월 중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상반기 취업시즌인 1/4분기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수는 2005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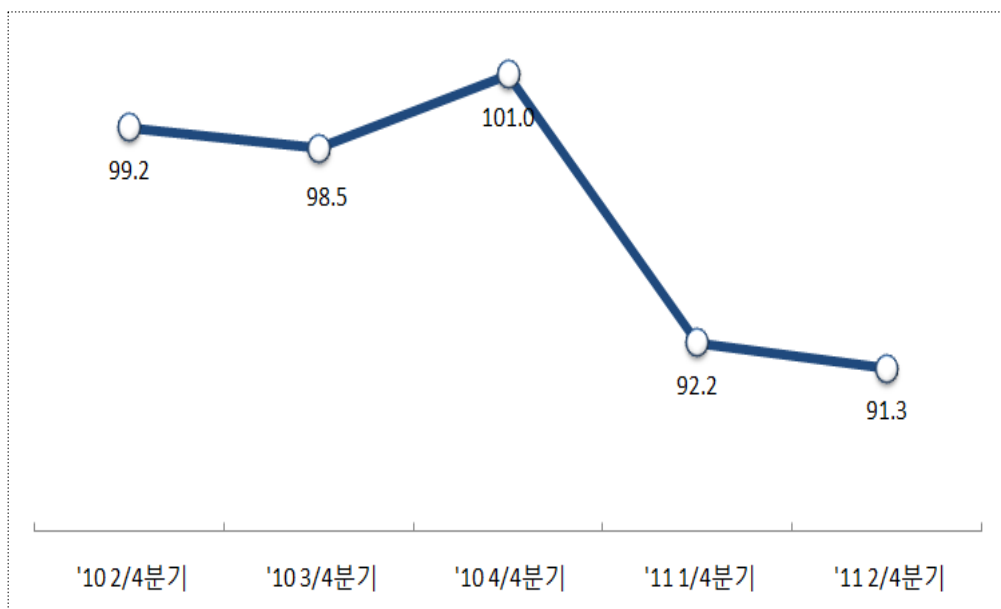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림 3] 서울의 취업자수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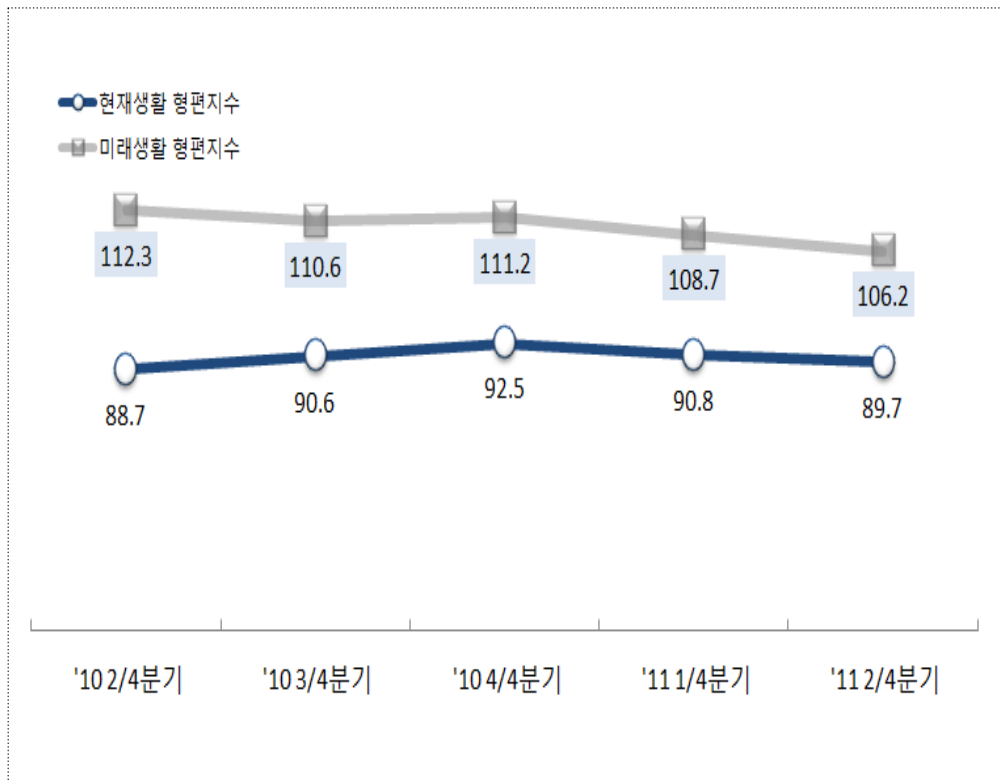
서울의 소비자 체감경기 다소 주춤

- 2011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1.3으로 2분기 연속 기준치 (100)를 하회
 - 서울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 92.2보다 0.9p 하락
 - 2010년 평균 99.7을 기록한 「소비자태도지수」는 2010년 4/4분기 101.0을 정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2011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 하락폭 8.8p보다 미미한 수준인 0.9p에 그쳐 향후 체감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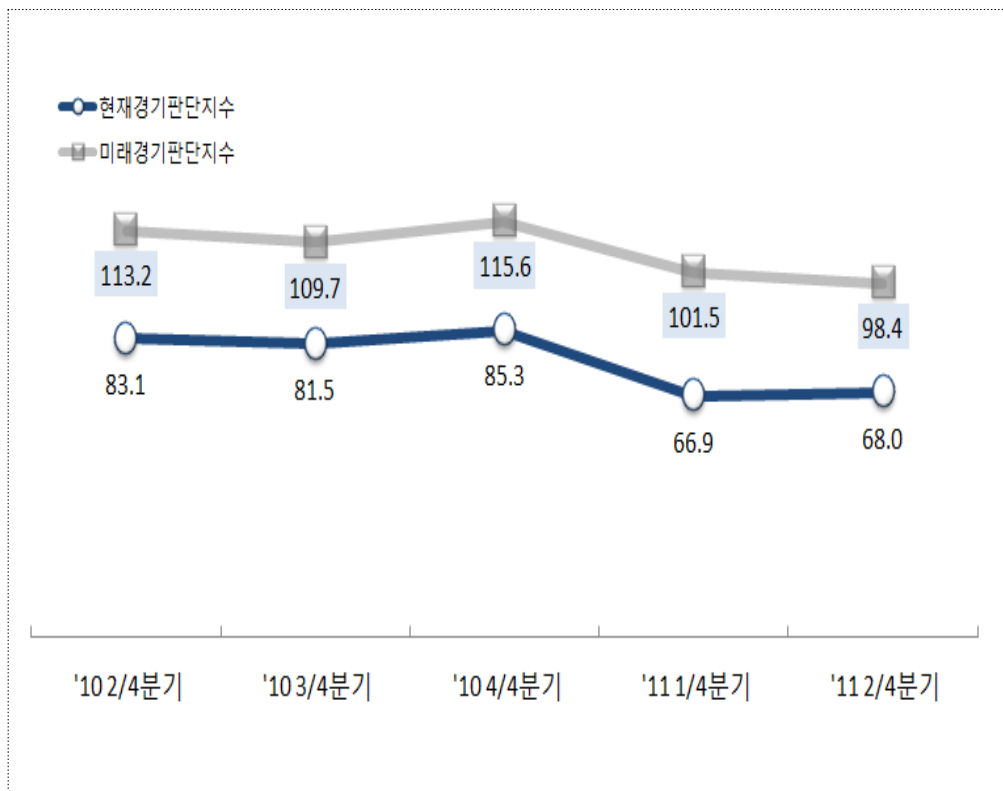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
 - 2011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89.7로 나타났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5p 하락한 106.2를 기록
 - 2010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최근 2분기 연속 소폭 하락세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1분기 이후 생활형편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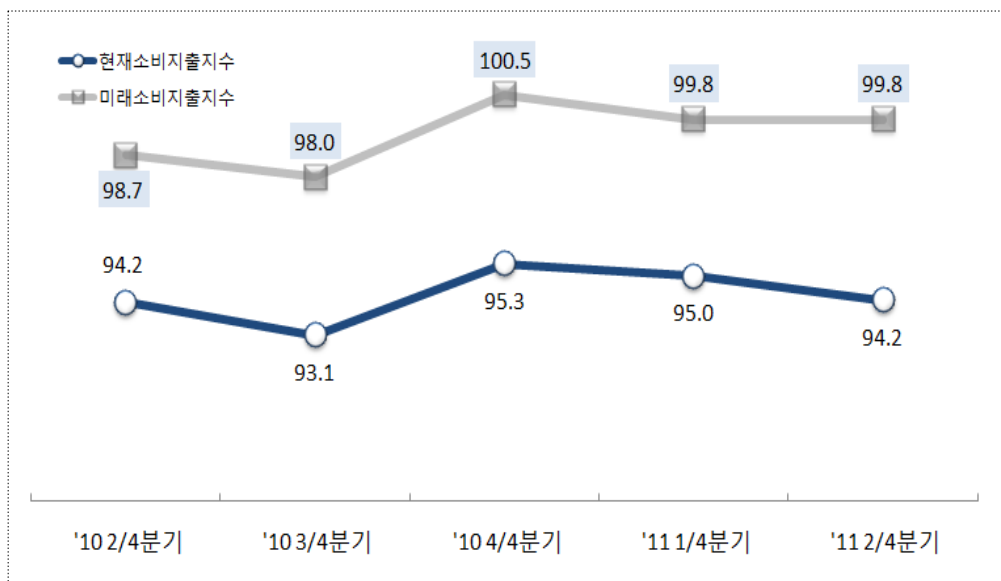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1/4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되었으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하락
 -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8.0으로 전분기대비 1.1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서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2011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대비 3.1p 하락한 98.4를 기록하고 있어 다음 분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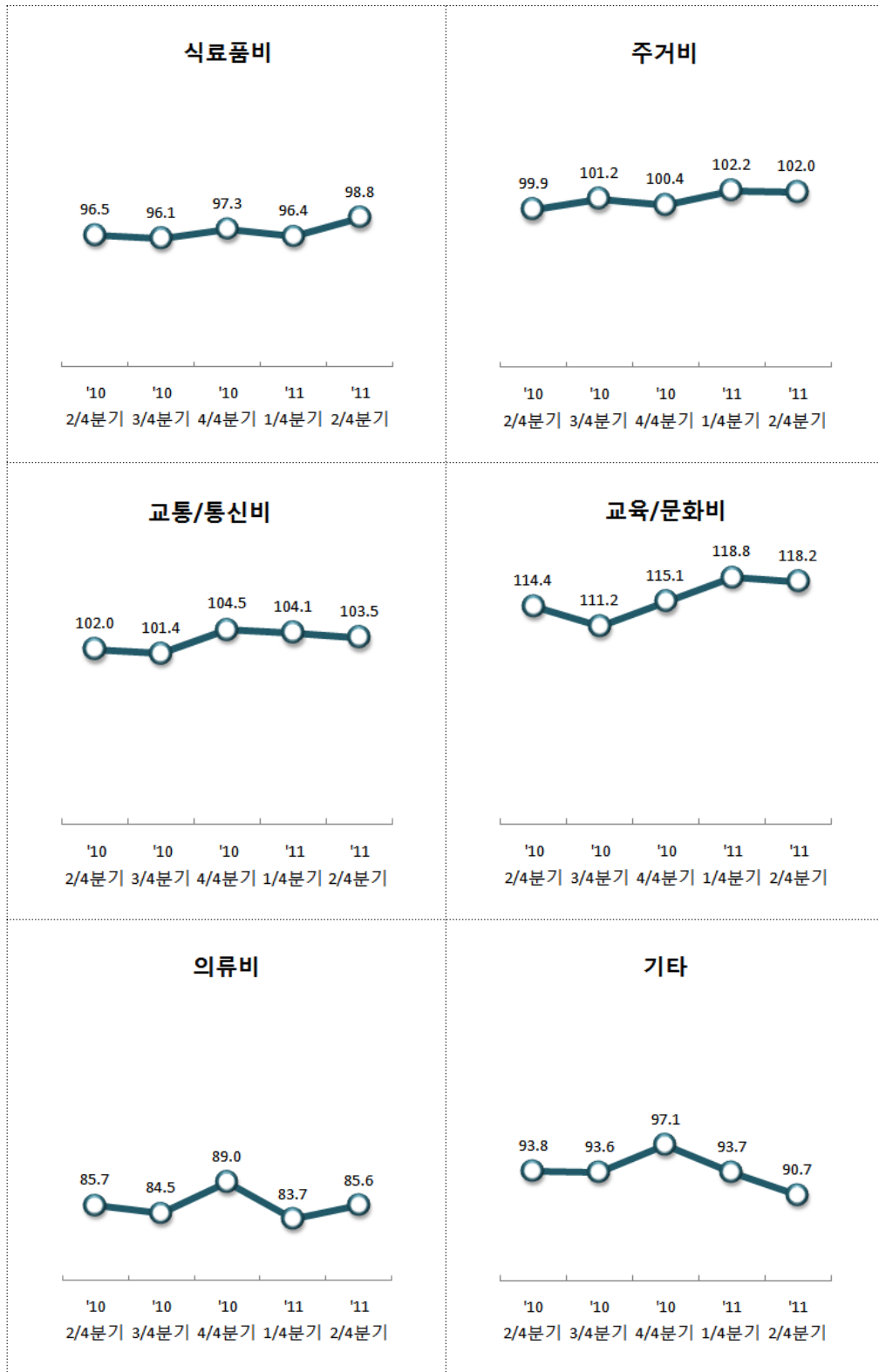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소비지출지수 역시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하락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201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94.2,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9.8로 전분기 대비 보합
 -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2010년 4분기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하락 또는 횡보로 큰 폭의 소비지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 조사 결과 ‘교육/문화비(118.2)’, ‘교통/통신비(103.5)’, ‘주거비’(102.2)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교육/문화비’, ‘교통/통신비’ 등 주요 품목의 소비지출 전망이 1/4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식료품비’ 지출 전망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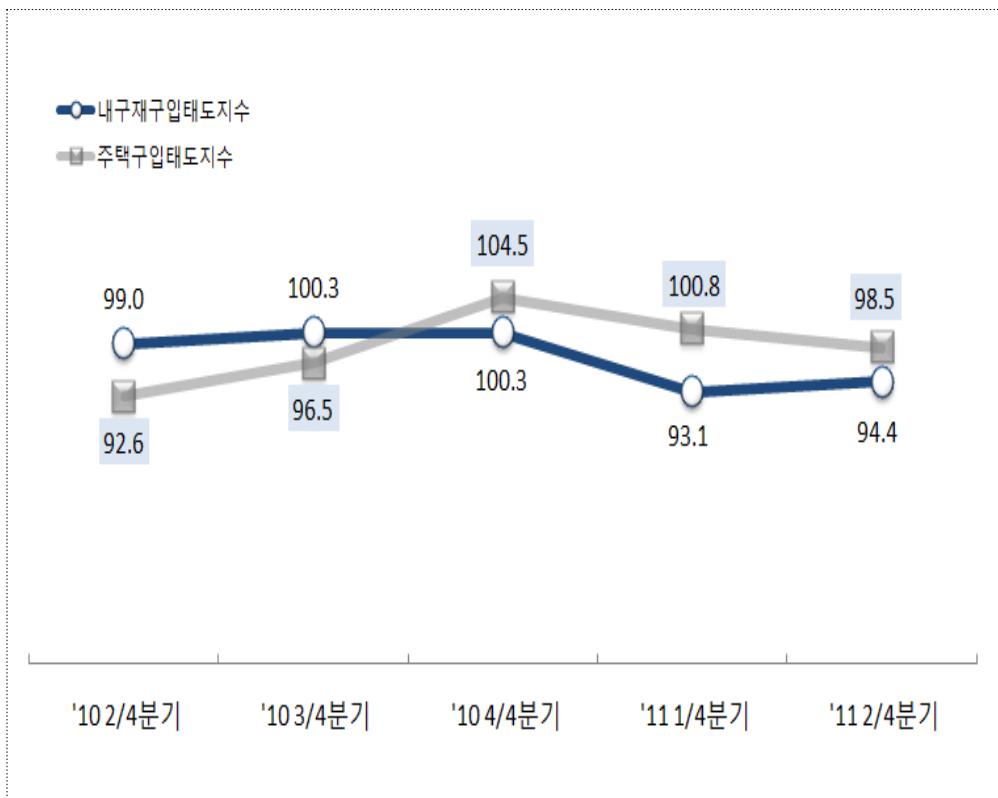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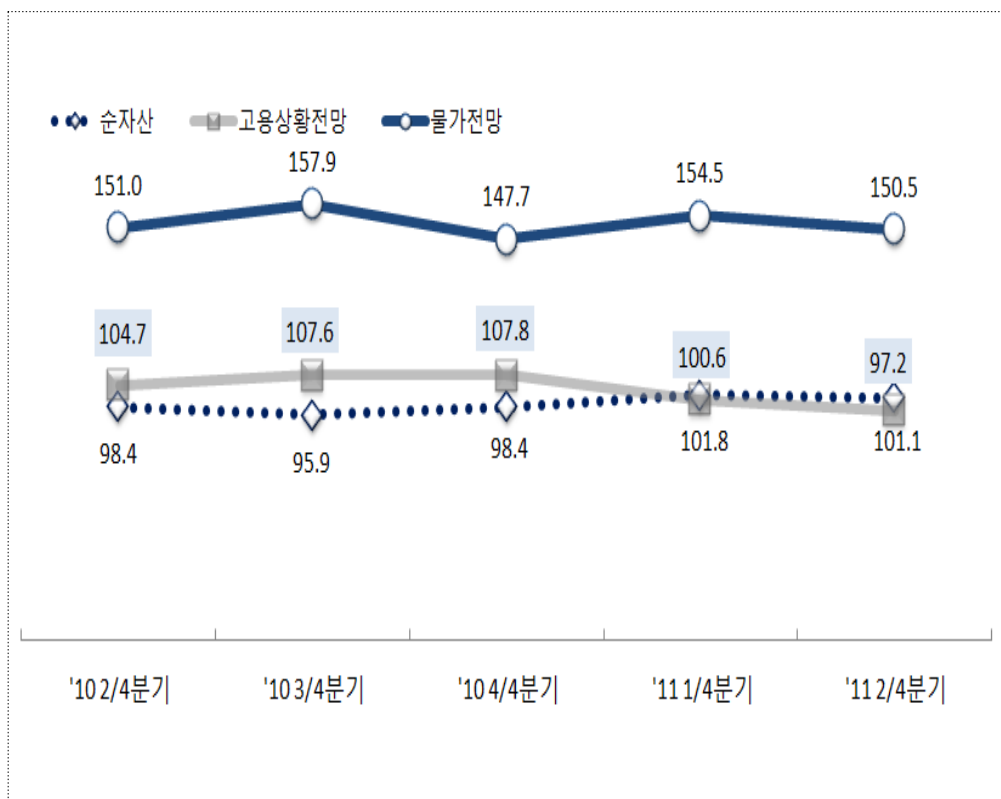
[그림 8] 품목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한편 2011년 2/4분기 서울의 「내구재구입태도지수」와 「주택구입태도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
 - 서울의 2011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1.3p 증가한 94.4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2011년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8.5로 1/4분기보다 2.3p 감소하여 주택구입에 대한 태도가 2010년 4/4분기 이후 보수적으로 변화



[그림 9]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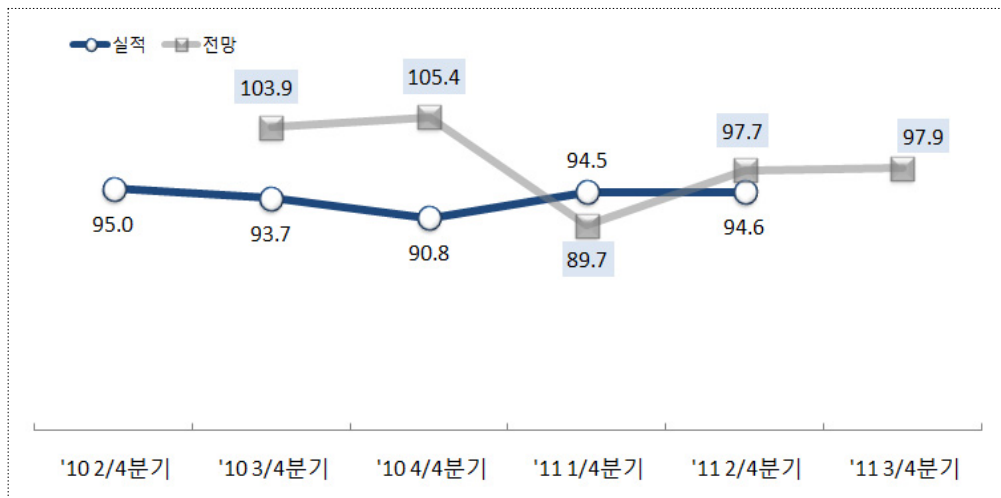
- 서울시 가계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고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
 - 2011년 2/4분기 서울의 「순자산지수」는 101.1로 2011년 1/4분기보다 0.7p 하락하였고, 「고용상황전망지수」도 97.2로 전분기보다 3.4p 하락
 - 2010년 꾸준히 기준치(100)를 상회하던 「고용상황전망지수」가 다시 기준치를 하회하여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불안감 반영
 - 「물가예상지수」는 2011년 1/4분기보다 4.0p 하락한 150.5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 상존



[그림 10] 서울의 순자산, 고용전망, 물가예상지수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 및 경기전망 서서히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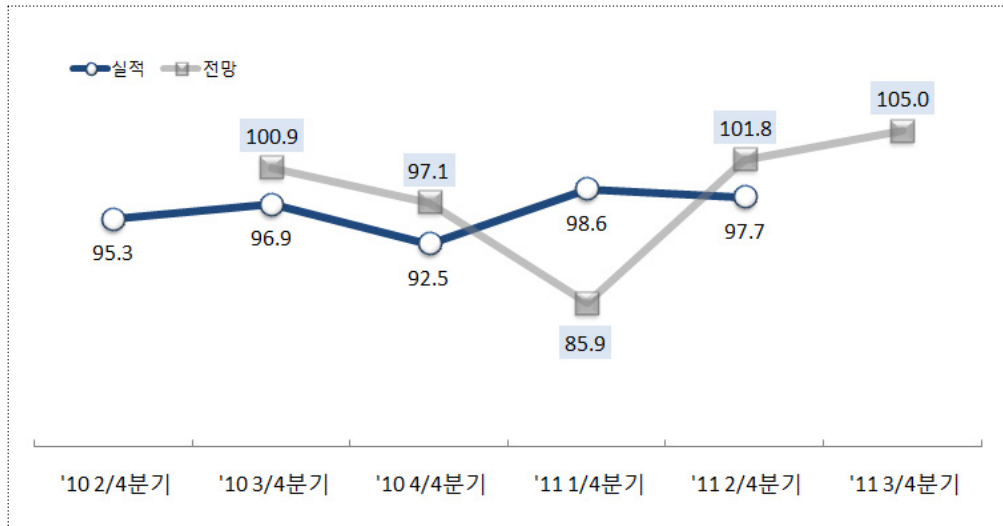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서울의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증가하고, 경기회복 기대감 역시 다소 개선
 - 서울의 2011년 2/4분기 「업황실적지수」는 94.6으로 전분기보다 0.1p 증가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이 1/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
 - 향후 기업의 업황실적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전망지수」는 3/4분기에 97.9로 2/4분기보다 0.2p 상승
 - 「업황실적지수」와 「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다소 상승하여 기업 부문의 체감경기 및 전망은 큰 폭의 변화 없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



[그림 11] 서울의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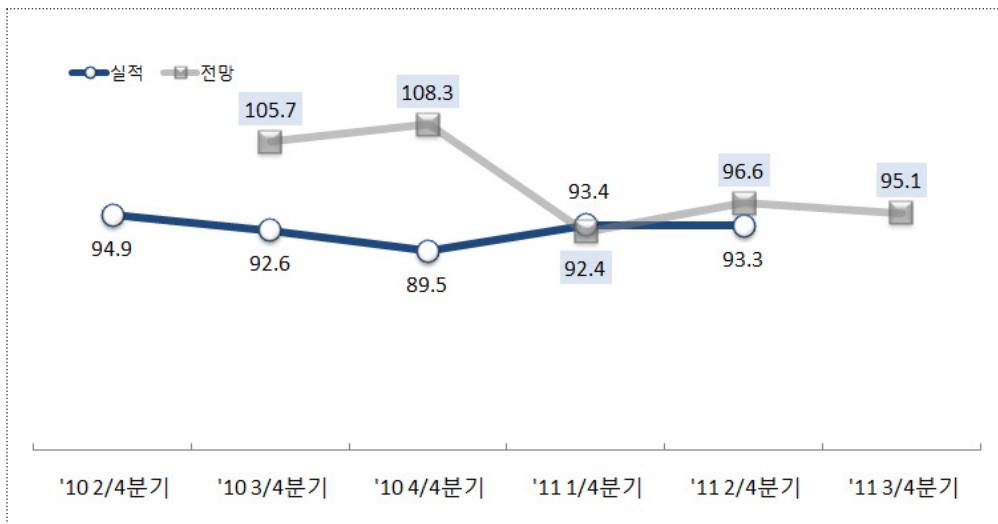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서울의 「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다소 하락 전망
 - 「제조업 업황실적지수」는 97.7로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한 반면 「제조업업

향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3.2p 상승한 105.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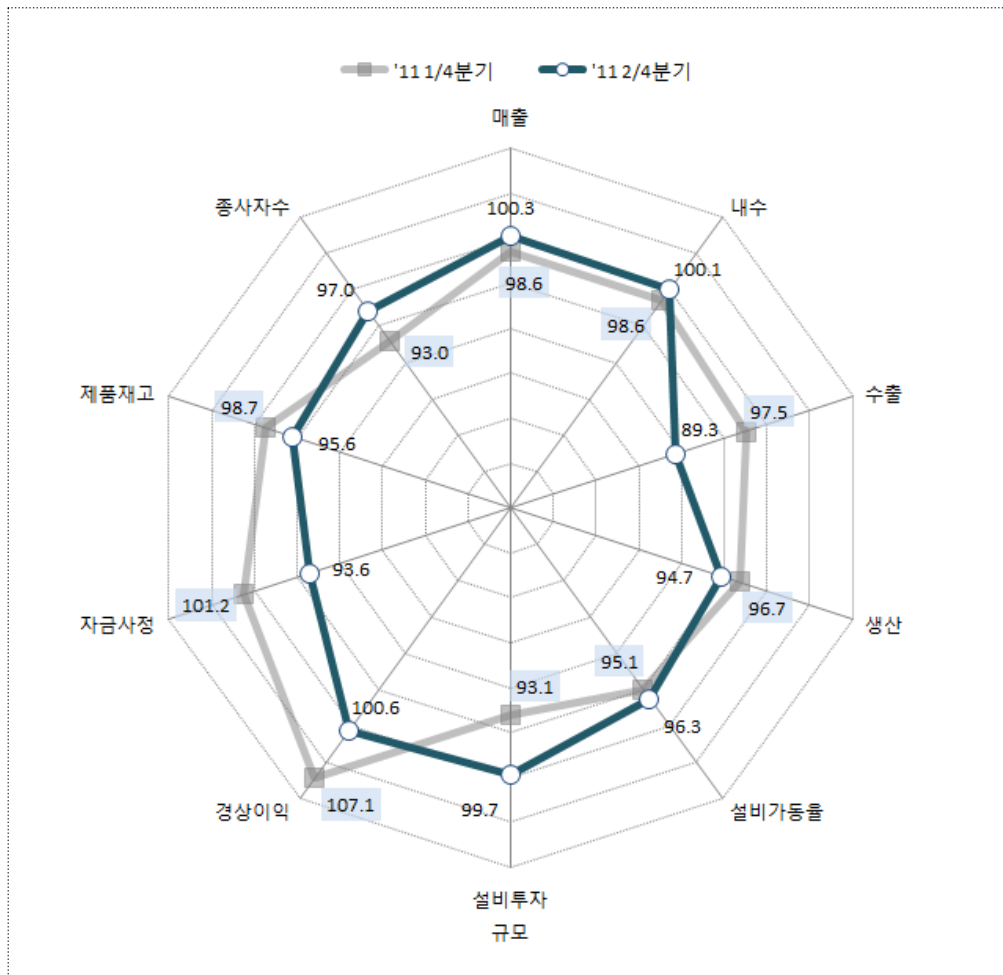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제조업 업황지수

- 「비제조업 업황실적지수」와 「비제조업 업황전망지수」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0.1p, 1.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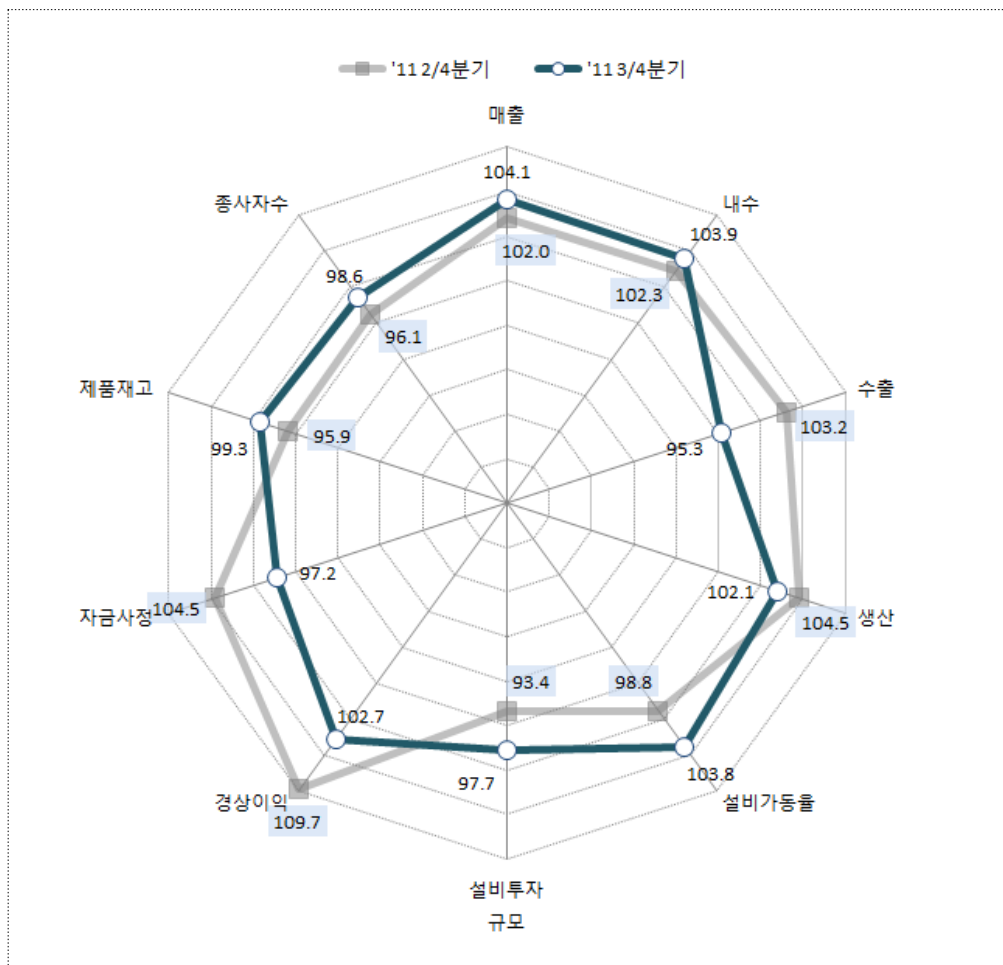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비제조업 업황지수

- 서울소재 기업은 외형적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자금흐름은 악화
 - 「매출실적지수」는 2011년 1/4분기 대비 1.7p 증가한 100.3을 기록
 - 내수부문의 실적지수는 100.1로 전분기대비 1.5p 증가하였고 설비가동율은 전분기대비 1.2p 증가한 96.3으로 외형적인 경영실적은 개선
 - 반면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은 전분기대비 각각 6.5p, 7.6p 하락한 100.6, 93.6으로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



[그림 14] 서울의 각 부문별 실적 지수

- 서울소재 기업은 2011년 3/4분기에 매출, 내수, 설비가동률 등에서 기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금사정은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
 - 「매출전망지수」는 2011년 2/4분기 대비 2.1p 증가한 104.1을 기록
 - 내수부문의 전망지수는 103.9로 전분기대비 1.6p 증가하고, 설비가동율은 전분기대비 5.0p 증가한 103.8로 외형적인 경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상이익, 자금사정의 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7.0p, 7.3p 하락한 102.7, 97.2로 기업의 자금흐름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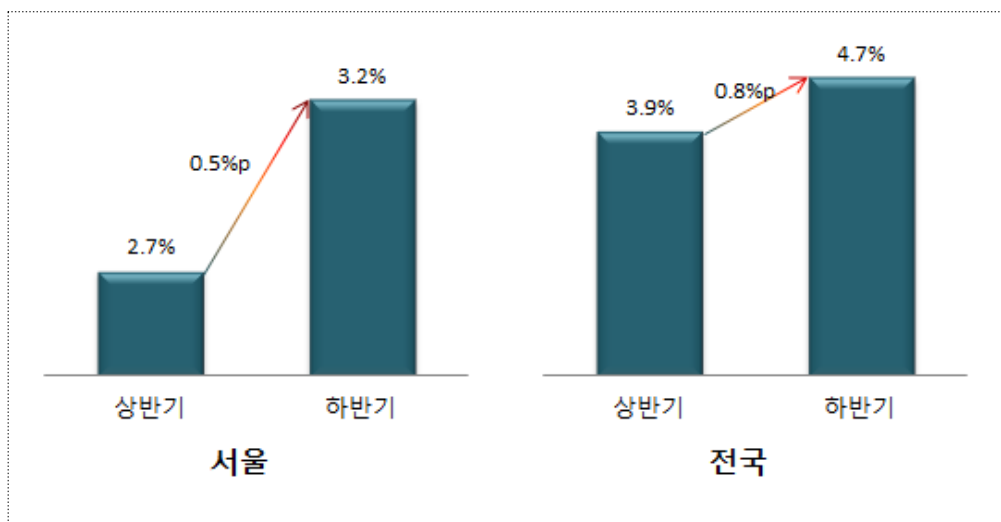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의 각 부문별 전망 지수

Ⅲ.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서울경제 2011년 하반기 3.2%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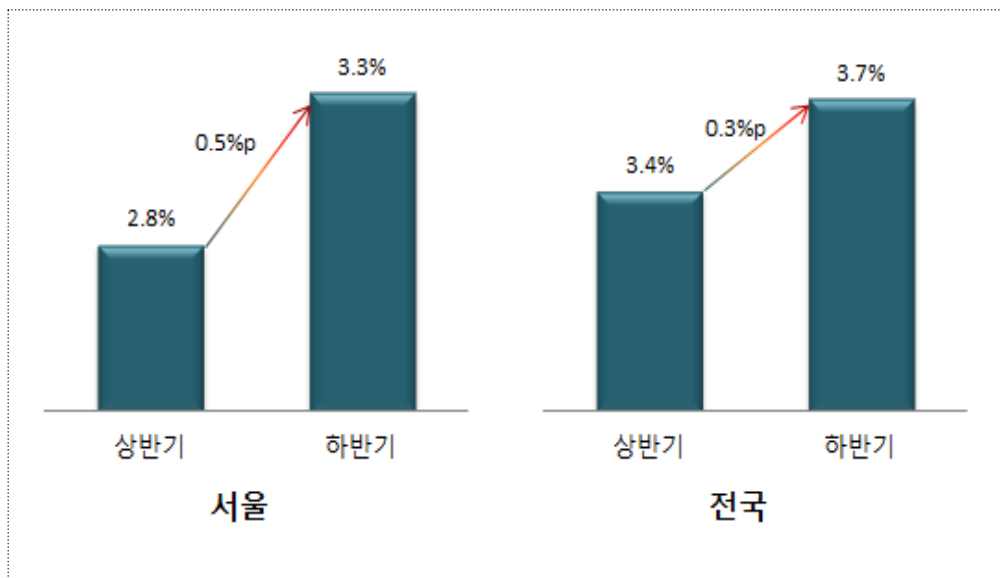
-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 0.5%p 높은 3.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과 민간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구조 특성상 전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증가폭보다 0.3%p 낮을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장기추세치 4.2%를 상회한 4.7%로 전망되지만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의 신용도 하락,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소비 성장폭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간소비 기반의 서울경제 역시 성장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KDI, 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6]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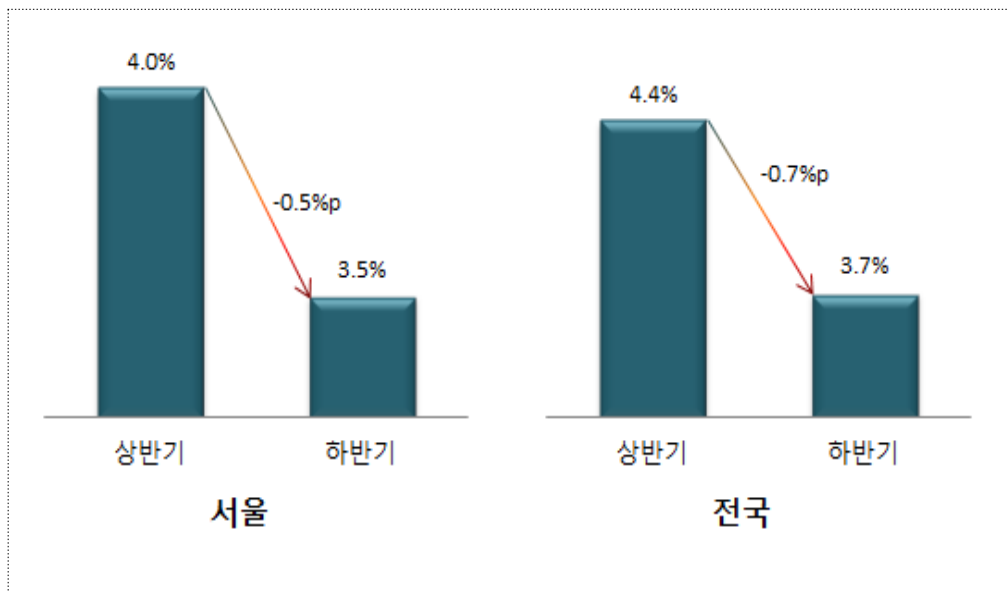
- 2011년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지출은 3.3% 증가할 전망
 - 서울지역의 소비심리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점진적 회복세 유지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2010년 상반기 이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역시 2010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
 - 하지만 2011년 2/4분기에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실적과 전망이 각각 94.2와 99.8로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하반기 서울의 민간소비 지출은 상반기 대비 0.5%p 증가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국 전망치 3.7%보다 낮은 수준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KDI, 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7]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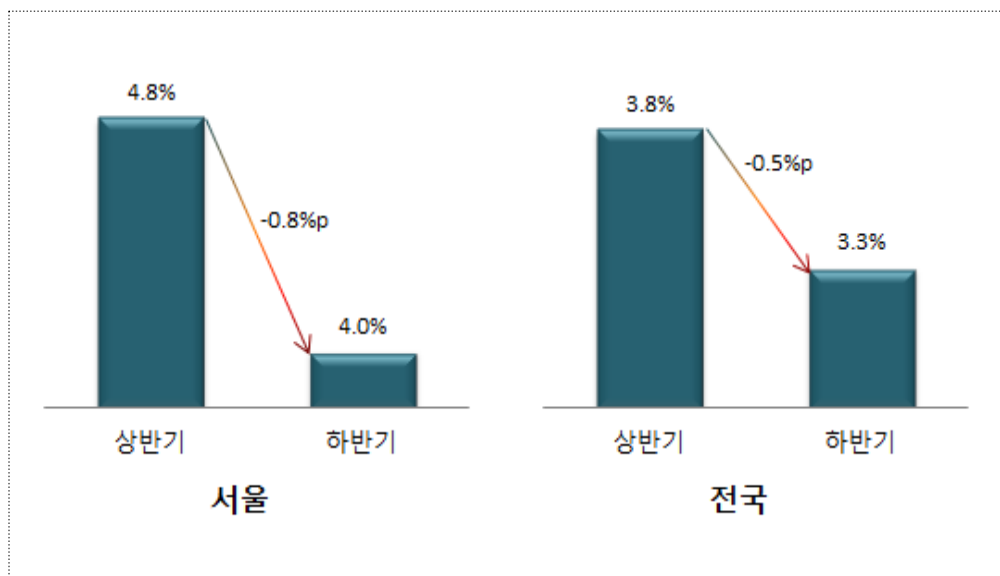
- 서울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4.0%보다 낮은 3.5%로 전망
 - 하반기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010년 2.9%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반기보다는 0.5%p 낮을 것으로 전망
 - 전국의 하반기 물가상승률 역시 상반기 대비 0.7%p 하락한 3.7%로 전망되어 2010년 물가상승률 2.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는 그동안 인상이 억제되었던 도시가스,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정체되었던 임금도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 구제역 여파 및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등 공급요인 불안정성이 하반기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KDI, 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8]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 2011년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경제성장 효과가 고용시장에 반영되면서 상반기보다 0.8%p 낮아진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 감소폭(0.8%p)은 민간부문의 고용확대 영향으로 전국의 실업률 감소폭(0.5%p)보다 클 것으로 전망
 - 전국의 하반기 실업률 역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수준인 3.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고용률이 2011년 1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1월: 56.8% → 5월: 60.1%)되는 등 서울의 고용시장은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
 - 하지만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고용전망지수」의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주: 서울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망, 전국은 한국은행, KDI, SERI 전망치 평균

[그림 19] 2011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

IV. 시사점 및 정책제안

하반기 서울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인 3%대 성장률로 복귀

- 서울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세 다소 주춤
 -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2%로 상반기보다 0.5p 높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연간 성장률 3.4%에 근접
 - 서울의 소비심리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점진적 회복세
 -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구제역 여파 및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등 공급요인 불안정성이 하반기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서울의 산업생산과 기업 경영 여건의 성장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여건의 빠른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서울의 1/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2%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지만 자본재 생산과 소비재 생산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성장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4분기 서울의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지만 3/4분기 서울소재 기업의 고용 전망이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하반기 서울경제의 주안점은 성장률 둔화가 성장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성장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

경기 안정화정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 소비자 체감경기조사 결과 「물가예상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여 물가 불안 심리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 필요
 - 중동 정세불안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 개인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에 따라 향후 생활물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판단
 - 하반기에 논의되고 있는 공공요금(전기세, 교통비, 가스 요금, 수도세 등)이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인상시기, 인상폭 등을 단계적으로 조절 필요
 - 주택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어 연 3.25%로 서울시민의 가계부채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시프트 등 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주택바우처 제도, 서울형 집수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경기회복 기조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과 여건 마련에 역량 집중
 - 최근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연령별, 계층별로 고용여건이 다르게 개선되고 있음
 -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 프로젝트’ 를 여성·장년층까지 확대 적용하고 계층별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인 창조기업 육성 등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장기적으로 서울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8대 신성장 동력산업(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관광전시, IT 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패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육성 필요
- 아울러 인쇄, 의료봉제, 귀금속, 기계 산업 등 4대 도시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정책 유도
- 그 외 인적자본 및 R&D에 기초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di.re.kr

부록 : 2011년 2/4분기 주요 조사 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2/4분기	99.2	88.7	112.3	83.1	113.2	99.0	92.6
2010년 3/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0년 4/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1/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2/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2/4분기	94.2	98.7	98.4	104.7	151.0
2010년 3/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0년 4/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1/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2/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표 3> 서울지역 기업 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10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11 1/4분기	'11 2/4분기	'10 3/4분기	'10 4/4분기	'11 1/4분기	'11 2/4분기	'11 3/4분기
매출	106.2	96.8	90.6	98.6	100.3	110.3	106.5	90.3	102.0	104.1
내수	106.5	95.7	90.9	98.6	100.1	110.6	107.4	90.5	102.3	103.9
수출	93.8	105.4	93.6	97.5	89.3	96.8	101.3	102.1	103.2	95.3
생산	102.0	101.6	94.3	96.7	94.7	105.0	100.9	90.3	104.5	102.1
설비가동률	100.4	105.5	90.5	95.1	96.3	104.1	98.8	90.8	98.8	103.8
설비투자규모	99.0	102.8	93.7	93.1	99.7	105.2	98.7	85.9	93.4	97.7
경상이익	102.7	94.8	86.5	107.1	100.6	107.4	103.3	89.8	109.7	102.7
자금사정	96.4	94.6	86.2	101.2	93.6	99.6	103.9	93.0	104.5	97.2
제품재고	97.8	104.2	108.0	98.7	95.6	100.5	103.8	94.6	95.9	99.3
총사자수	92.4	89.4	91.5	93.0	97.0	94.4	91.4	88.4	96.1	98.6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와 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임(2011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1년 5월말).